



제주 주택화재 사망자 증가 '불안불안'

최근 5년간 19명 숨져... 전체 사망자의 76% 차지 소방안전본부 4년 단위 저감 종합대책 마련 시행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제주소방이 4년 단위의 '종합대책'을 내놨다.

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도내 주거시설 화재는 632건으로 전체 화재(3083건)의 20.5%에 불과하지만, 사망자는 19명에 달해 전체 화재 사망자(25명)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사망자가 발생한 주택화재를 원인별로 보면 부주의 52.6%, 원인미상 36.8%, 전기적 요인 5.3%, 방화 5.3% 등이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고령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4명, 40대 3명, 7세 이하 3명, 30대 2명 순이었다. 이 밖에도 사망자 발생 주택화재의 절반 가량(47.9%)은 25년 이상 된 주택으로 나타났다.

사망자가 잇따르면서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024년까지 주택화재 사망자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목표는 2021년 7명, 2022년 6명, 2023년 5명, 2024년 3명 등 매년 사망자를 15%씩 감소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보면 원거리 및 화재취약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소방서 전담조사반을 운영해 전기시설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이어 주택 종류에 따른 진압 작전을 전개하기 위해 '현장 대응

기법'을 수립·운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소방대원 진입이 어려운 소규모 주택에서의 화재를 효율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소화약제를 발표하는 가칭 '소화탄'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소방 관계자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됐다"면서 "예방과 대응, 교육·홍보,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halla.com

함덕 자동차공업사 화재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이 나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2일 동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소재 A자동차공업사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염과 연기가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장비 30대와 인원 147명을 투입해 1시간여만인 오전 1시 56분쯤 화재를 진압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화재로 인해 차량 4대와 공업사 일부가 소실되는 등 45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강민성기자



아찔했던 오일장내 교통사고 오일장이 열린 날 택시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오전 10시41분쯤 제주시 민속오일장 입구 주차장 인근에서 택시가 50대 보행자를 친 뒤 시종로로 부딪혔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물론 택시가 타고 있던 80대 손님도 다쳤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농아인협회장 당선 취소하라"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제주농아인협회장이 최근 연임에 성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농아인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진행된 '농아인협회 임원 선거'에서 단독으로 출마한 A(54)씨가 회장직으로 당선돼 연임됐다.

문제는 A씨가 지난 1월 농아인협회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이에 농아인협회 일부 회원들은 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회장 당선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유죄가 인정됐음에도 아무런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 농아인협회 중앙회와 보건복지부, 제주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은범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운전 주의하세요"

2017~2019년 교통사고 분석결과 55%가 보행자 보호 불이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절반 이상은 운전자가 보행자에 대해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 중 54.8%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불이행으로 발생했다. 또 어린이가 횡단보도나 도로를 건너는 도중 사고를 당한 비율이 전체 사고의 85.7%를 차지하고 있었다.

자치경찰단은 2일부터 도내 초등학교가 등교 수업을 시작함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한다.

앞서 자치경찰단은 지난해부터 어린이 통학로 안전팀을 꾸려 통학로

가 확보되지 않은 초등학교 4곳의 등·하굣길 교통 안전을 강화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어린이들이 등교수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도민 모두가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한 덕분"이라며 "등교 개학에 맞춰 학교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등 안전 활동을 비롯, 방역 활동을 꾸준히 지원해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halla.com

공원서 '묻지마 폭행' 20대 긴급체포

제주시내 한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과 길을 걷던 여성을 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낮 12시쯤 제주시 화북동의 한 공원에서 B(20)씨와 C(12)군이 폭행을 당하

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B씨와 C군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과 A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강민성기자

애조로 달리던 25t 화물트럭 화재

제주시 애조로에서 월산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25t 대형 화물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 사진

2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쯤 A(30)씨가 자신이 몰던 트럭 운전석 하부에서 불꽃과 연기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10여분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탑승석 이 부분소실되는 등 440여만원의 재



산폐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민성기자

학교 앞 횡단보도 교통사고 운전자 금고형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7세 어린이를 친 60대 여성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상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65)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9년 8월 13일 오후 6시20분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보행을 하고 있는 A군을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해 누골 골절, 혈기흉,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

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제한속도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2~32.5km의 속도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낸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여러 차례 입원과 수술을 반복했고,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부모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의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4·3 온라인 콘텐츠 제작

제주도교육청은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함께 4·3전국화를 위한 4·3평화인권교육 온라인 콘텐츠 '흔디가게, 4380'을 제작, 도내 및 전국 학교에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흔디가게, 4380'은 5~6분짜리 영상 콘텐츠 10편, 총 60여분 분량으로 구성됐다.

4·3을 둘러싼 제주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되짚고, 4·3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조망하는 형식을 갖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강의 형식을 탈피해 4·3을 쉽게 전달함과 동시에 보는 사람의 정서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형식을 도입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자료로 쓰여 4·3의 내면화·전국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흔디가게, 4380'은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유튜브 채널 '제주43TV' 4·3평화재단 홈페이지, 4·3 관련 단체 소셜 미디어 등에 공개된다. 오은지기자

그랜드보청기

2021히트브랜드대상 품목이 특가할인!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대행 해드립니다.

2021 히트브랜드 대상 1위
THE HIT BRAND AWARD 1ST PLACE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샴촌들 혼자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중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O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리일보 서사리 사거리 동쪽 100m 구행복빌딩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약번호 2018-GN1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제주시청 제주대 CGV
와이덱스 보청기 광양사거리
←화북

☎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육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SM그룹 에스엠신용정보

생각만해도 머리 아픈 돈, 돈! 최선으로 받아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에스엠신용정보**를 선택하십시오!
만족으로 보답해 드립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부동산대금, 투자금, 빌려준돈(판결문, 공증), 약정금, 구상금, 계돈

고객님 언제든지 전화,방문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며 착수금(선불경비)일체 받지 않습니다

에스엠신용정보 제주지사 ☎ 064)756-9041

직원모집 추심관리사, 영업전문직을 모집합니다 064)725-9001